

튼튼한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전북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개최... 내년도 7개 사업 80억원 규모 사업설계·개별사업 자문

전북도는 20일 도청에서 전라북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사업으로 확보된 총 80억원 규모의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민간 부위원장인 서정덕 교수(전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주재로 진행, 산학연관 14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2019년도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을 청취한 뒤 내년 신규사업인 동남아 뿌리기술인력 교류증진 사업에 대해 격려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2019년도 예산사업은 계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1건으로 총 7건이다.

계속사업은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크지원사업 20억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8억3500만원 ▲뿌리 자동차기술 융복합소재 협업페어 1억5000만원 ▲수출지향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 40억원 ▲전북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 6억 6000만원 ▲뿌리특화단지 지원사업 2억5000만원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전북뿌리산업연합회와 베트남 탁락성 기계협회 우호 교류를 계기로 ▲동남아 뿌리기술인력 교류증진사업 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제2차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종합계획(2018~2020)의 비

전인 전북뿌리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조성을 위한 뿌리기술전문화, 글로벌 사업화, 스마트화, 인력수급 안정화, 인프라 집적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열린 전북금형산업협회 김정욱 사무국장의 '완주 뿌리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 관련 국가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는 민간주도로 전북금형산업협회 회원사 및 완주 뿌리산업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동유럽과 남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직접 기획 및 공격적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서정덕 부위원장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제2차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반영되

고 신규시장 진출 및 해외일감 확보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마케팅 지원사업비 증액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상식 전북뿌리산업연회장은 "올해 한국GM군산공장 가동중단, 최저임금인상, 고용시간 단축, 산업안전 규제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자동차, 농 건설기계 등 지역주력산업을 뒷받침하는 뿌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열난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금형업계의 불굴의 의지로 직접 국가공모사업을 기획, 성공한 사례가 다른 뿌리분과협회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소통의 창구·도민 건강지킴이 역할 '특특'

전북체육회, 17개 학교서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운영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도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특특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8개 시·군 17개 학교에서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방과 후나 휴일 등 유휴시간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각 학교체육시설에 관리매니저를 배치시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8만8000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는데 동호인들과 가족단위 회원

은 물론이고 학생과 해당 학교 교직원 등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강습 프로그램(초보자 중심)과 자율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등 자신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참여하고 있다. 이용률이 높다보니 학교와 주민들의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면서 지역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등도 얻고 있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여성 맞춤형 프로그램, 지금 신청하세요'

여성교육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60개 과목 개설·내달 4일까지 접수

도민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자격증 취득과정, 생활문화 복지지원과정, 기능기술향상과정 등 총 4개 과정 60개 프로그램 개설을 목적으로 2019년 제1기 교육 수강생을 현재 모집 중이다. 20일 밝혔다.

신규 개설 교육으로는 리더십(인문학), 자이로키네시스, 스피치코칭, 그린인테리어(플라워아트, 실버인디얼) 전문가 등 26개 과목이 있으며, 직장 재직자를 위한 '블로그마케팅', '중국 어 회화', '로봇 코딩지도사' 등 25개 과목이 아전에 편성되어 직장인을 비롯한 수요자에 따른 다양한 시간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교육 신청은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 기간은 1월부터 오는 3월까지(프로그램별 11주~18주 운영) 석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본인에 한해 무료 수강(연1회)을, 남성 수강생에게는 수강료 5%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이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673 또는 홈페이지(www.jwec.re.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여성청소년 성장 지원

위생물품 무상공급 확대

전북도, 예산 8억3600만원 편성

전북도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무상공급 지원을 확대한다.

20일 도 여성청소년과는 올해 하반기 여성청소년에게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8000여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8억3600만원을 편성했다.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만11세에서 만18세 기초수급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신청(관할 읍·면·동)하거나 복지포 사이트 또는 어플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대상자로 선정이 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면 바우처포인트를 사용해 온라인 유통점(G마켓, 옥션, 삼성쇼핑몰, 올리마켓)과 오프라인 유통점(이마트, CU편의점, 롯데마트)에서 대상자가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철인 3종 경기 중 하나인 사이클 경기.

새만금에서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열린다

첼린지패밀리 군산 개최 결정

철인 3종 경기의 세계적인 이벤트인 첼린지패밀리(Challenge-family) 대회가 내년 6월 30일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상위권의 유명 프로선수 약 30여명을 포함해 국내외 1000여명의 철인들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 본사를 둔 첼린지패밀리는 아이언맨 대회와 더불어 세계 철인 3종계를 양분하는 스포츠 행사로 지구력을 필요로하는 세계의 스포츠 대회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회로 알려져 있다.

해마다 6,000명이 출전하는 첼린지로스(Challenge-Roth)가 첼린지패밀리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철인 3종대회이며, 매년 세계 22개국 48개 도시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다. 연간 7만 명의 참가 선수,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관람객은 각각 30만명과 100만명에 이른다.

첼린지패밀리 코리아 관계자는 "2019 첼린지 군산-새만금 대회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젊음과 건강의 상징인 경기 특성과 새만금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이루어진 가장 이상적인 철인 3종 대회로서, 고군산군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대회는 수영 1.9Km, 사이클 90Km, 달리기 21Km를 8시간 이내에 완주해야 한다.

한편 첼린지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군산시, 전북철인 3종협회, 첼린지패밀리 코리아 관계자는 본 대회를 지역전문가, 스포츠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인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서 성공적으로 치러 군산 새만금을 철인 3종 메카로서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세종학당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이하 세종학당)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재단 이상욱 이사장과 세종학당 강현화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와 한국어'를 통한 국위선양, '태권도와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활성화 등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의 시설과 교육 환경 등이 세종학당의 각종 프로그램 진행과 한류 확산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56개국 172개소에 달하는 세종학당의 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태권도 저변 확대'를 비롯한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